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조현종

“

실로 오랜만에 대곡리의 청동국보가 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온다. 출토된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이 청동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개관 이후 첫 귀향이다.

”

## 족보가 확실한 청동유물

출토된 청동기들은 기원전 4세기경에 해당되는 거울과 칼, 방울 등으로 전체 수량은 11점이다. 당시는 이른바 제사장일차하여 종교를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정치적인 권력까지 집중된 시기이다. 제사장에게는 공동체의 성원을 위한 풍요와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출토된 청동기 또한 제사장의 소유물로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되는 각종 의례의 수행시에 사용된 자료인 것이다.

의례기준에 으뜸은 하늘에 대한 제사였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개가 외우고 있는 주소 하나가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198번지' 그것이다. 약하여 화순 대곡리로 알려진 이곳은 국보 143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지석전을 내려 보며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숲의 가을은 정취가 더없이 아름답다.

대곡리유적이 특별한 깊은 다양한 청동기가 한꺼번에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유물의 출토지, 즉 주소가 확실하다는 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명백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청동기가 보편적인 유물이 되었지만, 이 유적이 세상에 소개된 1971년경 만해도 족보가 확실한 청동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었다.

이러한 청동기는 그 생산에서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인 샤먼의 관리품목이었다. 물론, 제사장의 무렵에는 그가 생전에 소유한 청동기를 함께 묻어 저승으로 보냈다. 밀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이러한 청동유물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반짝이는 황금색이며, 청동기에 새겨진 동심원과 거문고, 그리고 고사리무늬와 같은 기하학무늬는 선사미술의 중요한 모티브이며 당시인 우주가 녹아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청동기의 매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로 오랜만에 대곡리의 청동국보가 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온다. 출토된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이 청동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개관 이후 첫 귀향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재액과 마귀의 유혹을 절단 내는 도구였다. 돌과 토기만으로 생활하던 석기시대에 금속기의 등장 자체로 놀랄만한 사건이 분명할진대, 태양빛을 반사시키거나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초목이 단칼에 베어져 나가는 서슬 펄펄 황금빛 청동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나 위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 샤먼의 권리·위엄 상징

이러한 청동기는 그 생산에서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인 샤먼의 관리품목이었다. 물론, 제사장의 무렵에는 그가 생전에 소유한 청동기를 함께 묻어 저승으로 보냈다. 밀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이러한 청동유물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반짝이는 황금색이며, 청동기에 새겨진 동심원과 거문고, 그리고 고사리무늬와 같은 기하학무늬는 선사미술의 중요한 모티브이며 당시인 우주가 녹아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청동기의 매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로 오랜만에 대곡리의 청동국보가 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온다. 출토된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이 청동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개관 이후 첫 귀향이다. <국립광주박물관>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의료 칼럼



김영철

국내에서도 암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폐암학회에서 지난 2005년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암환자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지난 1997년 63세에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성비는 남자가 76%, 여자 24%였으며, 여성 폐암환자는 1997년 21%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흡연경력이 없는 폐암 환자는 29%로 1997년 13%의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대기오염 등 공해나 직업성 폐

소 등이었으나, 12%의 폐암 환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진검을 통하여 진단된 경우였다.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진단된 무증상 환자들은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아 50% 이상 수술을 받았으며 그에 후도 좋았다. 건강진단의 이로운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나 방사선 등의 항암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기간이 뚜렷하게 연장되었다. 특히 폐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환

## 기 고



문병민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지나치게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등 견猃한 정신이 실종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주역인 젊은이들은 일본의 식민시대, 6.25전쟁을 단순한 과거사로만 인식하고 국가의 소중함도 잊는 것 같다.

또한, 양극화와 각각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치열한 득표 경쟁으로 인해 세대간, 지역간, 계층 간 갈등

행하여 왔으나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재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힘은 그 나라 국민의 정신문화에 결정된다.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사랑 정신이야말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민족정신의 근원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순국선열들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무한 경쟁의 세계화

## 간접흡연도 폐암 유발...‘민폐’ 끼치지 말자

암 증가한 것도 있지만 간접흡연의 영향도 크다. 그러나 폐암 환자의 71%가 흡연자임을 고려하면 금연을 통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흡연이 주원인인 '평평상피 세포암'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선암의 발생비율이 높아졌다. 선암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해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

폐암 진단에 있어 수술할 수 있는 1·2 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25%였으며, 항암·약물 치료가 주요 치료방법인 4 병기(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는 40%를 차지하였다. 최근 활발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1·2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폐암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흡곤란·흉통·각혈·체중감

자 중 4 병기 진단을 받았거나 7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뚜렷하게 연장되었다.

폐암에 대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는 수술이 가능한 초기의 폐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4 병기와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생존기간을 연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

폐암치료는 내과, 외과, 방사선종양 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의 전문의료진들의 긴밀한 협의 치료가 필수적이므로 대학병원을 찾는 게 좋다.

대한폐암학회에서는 폐암 및 금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제3회 폐암퇴치의 날 행사를 16일 개최되는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www.lungca.or.kr)에서 갖는다.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파트 이름 부르기 쉽고 이해 쉬운 우리말로 짓자

대전 정부종합 3청사에서 근무중인 남편이 바빠 집에 오지 못할 때마다 가족들 모두 대전에 간다.

최근 남편이 묵고 있는 정부청사 인근 아파트를 보면서 이름이 이색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청사 주변 아파트 이름은 전부 우리 말, 우리 글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사는 아파트는 샘머리 아파트, 그 뒤는 백조, 그 옆은 진달래, 목화, 백련 등이다.

자녀가 “왜 이 지역 아파트 이름은 모두 우리 말, 우리 글과 새이름으로 됐나?”고 물었을 정도다.

반면 광주 지역 아파트 이름은 외국어로 뒤덮여 있다. 영어로 쓰는 것도 성이 안차 이상한 기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밸드를 쉽지 않은 아파트가 많다.

타 지역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 우리말로 아파트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역은 밸음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아파트 이름을 짓는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걸까.

▲김점숙·광주 북구 총효동

## 내일은 순국선열의 날

이 심회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질서를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점진적 또는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통합의 폐려다임이 없다면 그 해결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 과정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얼과 위험을 기념하고자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을사조약(1905년)이 늑결(결핵·강제로 체결)된 날인 11월 17일을 전후로 많은 분들이 순국하였기에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순국한 선열들의 독립·희생정신을 기리며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광복 후 광복회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주도행사를 거

시대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적 가치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를 봉안하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송고한 위국현신 정신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해마다 11월 17일 백범기념관에서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사랑스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들의 가슴에 한민족의 얼을 심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첨된 공부가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실질적인 국권 침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을사조약 늑결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한 의미를 미래의 주역들 가슴 속에 새겨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장)

## 충치 치료 재료 보험 적용 확대해야

치과 진료를 받으려 갈 때마다 비싼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치 치료의 경우 '아발감'이라는 재료를 사용할 때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아발감은 미관상 좋지 않다.

반면 아발감이 아닌 금이나 은, 또는 치아와 거의 유사한 재질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한 개에도 수십만원이 들어간다.

충치가 많을수록, 그 비용은 훨씬 올라가

게 된다.

임플란트 비용은 더하다. 기본적으로 치아 한 개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충치 치료에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금·은 등의 재료나 임플란트에 쓰이는 원가를 공개, 치료비를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민들이 충치가 생겨도 치료비를 걱정해 치과 진료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승민·순천시 교통동

## 시설

## '청약률 0' 지방 주택시장 방관만 할 건가

광주·전남지역에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에 한파(寒波)가 몰아치고 있다. 지역 분양업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이 시행된 지난 9월 17일 이후 분양된 광주 지역 아파트 3곳 모두 청약률 '0'를 기록했고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도산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지역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총격적인 아파트 청약률 '0'과 건설사 부도는 곰을 대로 깊은 지방 주택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책 때문에 그로도 침체됐다. 여기에 앞친 데 딱친 격으로 아파트 청약률이 낮아지면서 아파트 청약률이 드러나는 인터넷 청약제가 시행되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청약률이 바닥을 해매고 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빠진 것이다.

지방 주택건설업체는 출도산 위험에 떨고 있다. 지난 2월 순천에서 아파트를

## 가짜·유사 휘발유 판매 철저히 단속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저질 및 유사 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물과 벤젠 등을 섞은 저질 휘발유나 유사 휘발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만을 쟁기려는 암체상술이 쏟아졌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광주·전남 주유소 등 27곳에서 47건의 유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물 등이 섞여 품질이 떨어진 사례가 18건, 유사제품 판매가 29건이었다. 경찰도 유사제품을 판매한 67곳과 건설현장 등 대형 사용업체 15곳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가짜 또는 유사 휘발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다른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주유소의 입장에서 가짜 휘발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휘발유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세금이 60% 이상

## 無等 鼓

<덴마크를 순회하던 한 곳에 단은 막을 걸어 놓았는데 그 아래에 불이 났다. 단장은 막 분장을 끌고 광대를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계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호소를 관객들을 허치하려는 기발한 수법으로 보고 박장대소를 했다.

광대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허시였다. 오히려 광대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는 더 기막힌 연기로 여겨질 뿐이었다. 결국 불길은 마을까지 번져 땃길을 끝까지 번져 땃더미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